

대통령 표창 자립상 수상한 최영렬 거창지부장

철저한 경영분석으로 생산비 절감

- 취재 : 이병석 -

갈수록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치열해지고 우리의 양돈산업이 존립의 위기조차 느끼게 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농장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국제경쟁력이 가능한지, 농장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지, 양돈농가 스스로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눈치만 보게된다. 그래도 옛날에는 값이 한번 내리면 반드시 크게 올라 어려웠을 경우를 만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 한숨만 쉬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필 돈사는 다났고 너무나 재래식이어서 돈사를 새로 고치든가 신축을 해야 되고하니 설상가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때 가족중심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아주

큰 성과를 올리고 지역 양돈농가들에 모범이 되며, 지역양돈산업에 크게 이바지하여 대통령 표창 자립상을 수상한 경남 거창의 해성농장을(대표 : 최영렬) 찾아가 보았다. 해성농장 최영렬사장은 본회 거창지부장으로 거창지역의 양돈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끼친 장본인이다. 지금도 자신뿐만 아니라 양돈협회회원모두가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갖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표창 자립상 수상

지난 2월 28일 축협중앙회에서 열린 '95 새양축농가상 시상식에 대통령 표창 자립상을 수상한 최영렬지부장은 경남 거창에서 모돈 100두 규모의 해성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필자가 찾아갔을 때는 오전 11시쯤 되었는데 최지부장님은 돈사 내에서 모돈칸 수도 잠금장치를 열심히 고치고



부인 임영희씨와
멋진 포즈를 취한
최영렬지부장

계셨다. 돈사안까지 쫓아 들어가 인사를 드리니 바쁜 가운데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돈사안을 새로 신축하고 돼지가 아직 다 들어있지 않아서인지 냄새가 별로 없었다. 농장의 위치가 산 중턱 쪽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바람이 무척 시원하게 불고 있었으며, 특히 농장 높이를 다른 농장보다 약 1m정도 높여 놓았는데 이는 돈사내부를 습하지 않게 하기위한 방법이라 한다.

최영렬지부장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농장 사무실로 안내하여 주었다. 먼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최지부장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상을 준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서 주위의 많은 양돈농가들을 선도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간단히 밝혔다.

최영렬 지부장은 당년 42세로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농학과(부전공 : 축산학)를 지난 83년 졸업한 후 83년부터 85

년까지 만 3년간 부산에 있는 기자재업체에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86년도에 거창군 용양면으로 들어와 양돈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농장(거창군 고계면 궁항리)으로 이전한 것은 지난 92년도에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농장을 옮기게 되었다. 당시 농장설립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개선 자금과 평소에 쌓아두었던 신용을 바탕으로 축협과 농협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을 해결하였다 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모든 100두 규모에 상시사육두수 1,1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월 출하두수는 170두 정도 출하가 된다고 한다. 또한 모든 150두에 상시 사육두수 1,600두로 늘리기 위해서 돈사시설을 새로 증축한 상태이다.

최영렬지부장은 부인 임영희씨와 슬하에 동진·동욱 두 형제를 두고 있다. “돼지는 돈이 되는 사업이다” “돼지에게 준만큼 돼지는 사람에게, 꼭 보답해준다”며 양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최영렬 지부장은 “우리 양

돈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하며, 보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고기를 생산하므로 국민영양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고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영렬지부장은 농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외부로 일을 보러 나가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농장에서 관리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한 만큼 최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것을 볼 수 있었다.

최영렬지부장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생산·시설자금은 현재 농장을 잘 경영하고 국가경쟁력에 어느정도 경쟁이 가능한 양돈농가를 선별해서 그 농장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돈분노 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철저한 기록을 통해 생산비 낮춰

최영렬지부장은 또한 그 무엇보다 양돈가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최지부장의 농장은 철저한 기록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지부장은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위해 자신이 작성한 노트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다) 실제 농장에서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모돈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 이유두수(PSY)는 몇두인지, 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양을 구입하고, 구입하는 경우 타 농장보다 얼마나 싸게 구입을 하는지(실제 최지부장은 사료를 현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타 농장보다 사료를 싸게 구입한다고 한다), 비육돈을 판매하는 경우 얼마나 잘 팔수 있는지(돼지가 좋

고, 잘키우면 당연히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등 요소요소를 지적해 가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매일매일 꼼꼼한 기록을 통해 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생산원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농장진단은 현재 부경양돈조합에서 진단을 해 주고 있으며, 팩스(FAX)를 통해서 농장상황과 진단을 주고 받고 있다고 한다.

본회 거창군지부장으로써 지부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는 질문에 “우리 거창지부는 의욕적인 젊은 회원이 많기 때문에 개방 이전에 농장 개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사료나 약품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거창지부는 회원들중 50% 이상이 사료·약품을 현금구매하고 있다)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최지부장 스스로가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개인적인 목표는 경남의 모 종축장과 연계해서 GP농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벌써 이를 위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신청해 놓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최영렬지부장은 앞으로 개방이 되더라도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은 배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에게 길은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